

보통교부세 불균형 도농격차 심화 우려

산정방식 전복 불리해 지역간 형평성 제고 중요 법정교부세 상향조정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전복에 불리해 도농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재정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노력이 필요한 만큼,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시 교부세 산정 방식이 전복 등 광역도 지역에 불리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표준행정 수요예산정시 농업·임수산·도로관리·지역관리에 해당 면적이 산정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도에 비해 행정구역 면적이 10배 이상 차

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균형조정치(비중유지계수) 차이는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강 소장은 “농업·임수산·도로·지역관리비의 비중유지계수 상황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10년간 그대로인 교부세법정교부율(19.24%)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자로 참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원희 소장은 “지방교부세는 기초수요를 충당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접근과 불

필요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찾아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로 나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수 십 년 동안의 불균형 발전상황에 교육재정, 복지비 증가로 국가 차원의 조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지방의 목소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현재 사업단은 학생 45명 선발해 탄소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효율적으로 응용하는 실무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주대 탄소전문 고급인력 양성 주력

탄소 융합 커플링사업단 45명 응용 실무기술 교육

전주대학교 탄소 융합 커플링사업단이 탄소 전문 고급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대 탄소 융합 커플링사업단은 청년실업과 구인,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기계·화학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탄소 융합 커플링사업에 따른 것으로, 도내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탄소 전문 고급 인력양성을 위해 꾸려졌다. 현재 사업단은 기계전자공학부와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에서 선발된 학생 45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탄소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효율적으로 응용하는 실무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하계방학에는 학생들에게 탄소성형 이론 및 실습, CATIA, ANSYS 등의 교육을 통해 설계 및 해석, 제작까지 이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진행했다. 탄소성형 이론 및 실습은 탄소전문 지식습득과 제작을 통해 탄소와 더욱 가까워지고 이론에서 배운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탄소 소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CATIA Basic과정과 Surface 과정은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중심의 설계 교육이 진행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ANSYS 과정은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검증 기술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학과 과정에서 배운 역학적인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실시했다. 사업단은 특히,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계 현장실습은 수행, 현재 일부 학생은 기업의 요구에 의해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커플링 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 애로기술지도 및 교육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하계방학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높았다”며 “더욱 이들이 상위단계의 설계 및 해석 프로그램과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추후 동계방학을 이용해 고급과정의 탄소성형, CATIA, ANSYS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성화교육은캡스톤 디자인 작품 제작에도 도움이 됐으며, 사업단은 다음 달 7일부터 전라북도과 한국탄소학회가 주최하는 ‘2015 국제 탄소 페스티벌의 탄소 융합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5개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김성기기자 tjddk@



농어촌지역구 입당 전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농어촌지역구 의원을 대표해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왼쪽)이 특위 의원들에게 농어촌지역구 의원들 입당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송지사-경제단체 기관장 전통시장 적극 이용 호소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내 경제단체 기관장들이 23일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시민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이날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추석 성수품을 구입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불경기 여파로 시름하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이제는 전통시장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문화와 관광이 접목돼야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다”면서 “올해 초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에 선정된 모래내 시장이 특성화 사업을 잘 마무리 해 몇 명성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덕담을 했다. /박정미기자

전남 AI발생 도 방역 강화

최근 전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전북도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접지역인 전남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도내 유입이 우려되자 AI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도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유지하고,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등이 축산농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장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벌이고, 전통시장 산담판매점 등을 돌며 바이러스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고창과 순창·남원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전화예찰 및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미기자

도립국악원 창극단장 적임자 또 못찾아

2차공모 3명 지원자 경력부족 3차공모 나서 장기화 조짐

전북도립국악원의 창극단장 재공모를 통한 선발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인선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였다. 국악원은 지난 23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합격자 없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재공모를 거듭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예외 없이 드러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특히 이번 재공모에선 지원자들의

나이제한도 철폐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나섰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국악원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연령을 없앴다고 해서 적격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지원자격 확대를 요구했던 지역문화계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2차 공모 당시 3명의 지원자가 나섰지만 단체를 이끌어 본 경력이 부족해 창극단장으로선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국악원은 2차 재공모 또한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다

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일단락 했다. 한편 23일 국악원은 창극단장 채용공고를 다시 게재했다. 공모안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10월 14일까지며 1차 서류합격자 발표는 16일, 2차 면접은 2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관련분야 학력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대학 및 기관, 단체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관련분야는 국악 판소리로 제한했다. /홍민희기자 hmh@

장애인 보조기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가능해져

전북보조기구센터 개소 체계적-전문화 제작 서비스

도내 장애인들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전북보조기구센터가 전주대학교에 등지를 틀고 새로 문을 열었다. 전주대학교는 23일 본교 예술관 앞 광장에서 도내 장애인들과 관계자 등 2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보조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어려운 선정과정을 거쳐 올해 3월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전

북에서 총 4억 원(국비 2억 원,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도와 협약을 맺은 전주대가 위탁 운영한다. 이로써 도내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게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 및 평가, 맞춤형제작과 개조, 사후관리 등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센터 이용은 무료이며 직접 방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초기상담 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jbat.or.kr)와 콜센터(063-220-31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병창기자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
사랑을 지키면 희망이 커집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연탄 고맙수~ 잘 떨게요~”
“이제 안 아파요~ 고맙습니다.”

제가 전하는 작은 사랑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적십자회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커는 희망,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 긴급지원 문의
1577-8179